

“트럼프, 정치적 반대자 팔로워 차단할 수 없다”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반대자들의 트위터 접근을 차단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트위터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른 ‘공공토론의 장’ 이라는 이유였다.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맨해튼연방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사용자를 차단한 것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나오미 레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75쪽짜리 판결문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정부 관료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사용자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대화형 공간’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 발언에 근거해 이를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은 개인의 것이 아닌 ‘45대 미국 대통령’의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2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임 후 3,000여개의 트윗을 쏟아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미국 컬럼비아대 ‘수정헌법 1조 기사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가 트럼프 대통령이 차단한 트위터 이용자 7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 이들은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호프 히스 전 백악관 홍보국장 트위터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당했던’ <데일리 코스> 기자 레베카 버크왈터 포자는 “대통령을 고소했고 내가 이겼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수정헌법 1조 기사 연구소’ 책임자인 자밀 자퍼는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차단하는 관행은 악의적이고 헌법에 위배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이런 관행을 끝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트위터에서 차단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유로운 발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정중히 밝힌다.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당해 온 음악 평론가 댄 오치는 “트위터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 지도자의 공식 대변인 역할을 할 때, 나는 시민으로서 무엇이든 읽을 권리가 있다”며 “그동안 많은 뉴스를 놓쳤고, 다른 수십 명의 리트윗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들 “중간선거 이전 정상회담 재개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결정과 관련해 예정대로 6월 개최는 어렵지만 추후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머니투데이’가 뉴욕타임스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 및 외교 전문가들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은 원래부터 너무 조급한 선택이었다며 잘못된 협상을 하느니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6월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이 회담이 실제로 개최될 것이라 믿은 당국 관계자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개인 의지로 회담 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6월 회담이 너무 빨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가 정치적 업적을 위해 대북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쓴 공개서한에서 “언젠가는 나는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에서 열린 금융규제완화법안 서명식에서도 “바라건대 북한과의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한다”며 “북미는 함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6월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개최하거나 다른 날짜에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누구도 불안해할 필요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던 토니 블링큰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판돈을 많이 건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며 “서로 상대방에게 정상회담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치킨게임이란 두 대의 자동차가 마주보고 돌진하다가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을 뜻한다. 먼저 자세를 낮추는 쪽이 지는 팽팽한 기싸움이라는 뜻이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5월 28일 ~ 6월 3일, 2018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 28, 29, 1, 2 일 여자 길일 : 30, 31, 3 일

 쥐	<p>지금 현재는 스스로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일을 급하게 서두르면 이롭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력을 쌓고서 좋은 때를 기다리면, 곧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p> <p>금전○애정○건강△</p>	 말	<p>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니, 많아서 넘치는 것이 있으면 모자라는 곳에 덜어 주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하고 사업은 기반을 다지고 내부 관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섭과 거래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표소	<p>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분을 지키고 견실하게 노력하면 복록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넓은 아량으로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던 일을 지키고 내부 관리에 충실해야 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양	<p>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이면 소문만 크게 나고 실속은 없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적인 충실을 기하고 안정을 취하면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범	<p>지금은 실력이 있어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실력을 배양하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재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주위 환경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원숭이	<p>정도를 벗어나면 좋지 못합니다. 비리를 탐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거나, 헛된 일을 가까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은 뜻과 같이 순조롭지만, 큰 사업을 도모하면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p> <p>금전△애정○건강○</p>
 토끼	<p>절제가 지나치면 발전하지 못하고, 절제가 없으면 과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법. 중도를 생활의 지점으로 삼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작은 사업은 착실히 노력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큰 사업은 신중히 추진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래와 교섭에는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임해서는 안 되고 먼저 상대방의 이익과 의도를 인정해 줘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닭	<p>구름이 하늘에 올라가서 비가 되어 다시 내리기를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초조해 하지 말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 크게 성공합니다. 적당한 기회를 노리면서 덕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p> <p>금전○애정△건강○</p>
 용	<p>다른 사람의 의사를 따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혹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뒷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겸손하고 유순한 자세를 가지면 복록이 저절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금전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p> <p>금전△애정○건강○</p>	 개	<p>반복되는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태평스러운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권태로움을 수반하므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고 욕구불만이 생기기도 쉽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확고한 주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져야 하고 욕친을 공경하고 넓은 덕을 쌓아야 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돼지	<p>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구설수가 두렵습니다. 넓은 덕을 베풀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때를 맞추어 일을 한다면 나아가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문서계약 관계는 분명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돼지	<p>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 일상생활에서 절제가 필요하며, 정도를 벗어나면 좋지 못합니다. 비리를 탐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거나, 헛된 일을 가까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인배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막아야 합니다. 가까이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p> <p>금전△애정○건강○</p>